

## “미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는 ‘정부’”



▲ 백악관에서 입법에 대해 논의 중인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 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문제보다도 정부와 지도력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미국인의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2~22일 미국의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1%가 ‘정부·지도력 부재’를 꼽았다.

이어 인플레이션(15%), 이민(11%), 경제 전반(10%), 인종차별(6%) 등 순이었다.

지난해 11~12월 같은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가 각각 16%의 응답률을 기록,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정부·지도력 부재라는 답변은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갤럽은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정부를 국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며 “이는 118대 의회의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 시장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했다. 응답자의 64%는 현재가 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8%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지난 연말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갤럽은 “최근 몇 달 사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견고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량해고가 이 같은 견해와 경제 전망에 전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낱말퍼즐 정답

<sup>1</sup> 베	<sup>2</sup> 짱	<sup>3</sup> 이		<sup>4</sup> 빈	<sup>5</sup> 티	<sup>6</sup> 지
레		<sup>7</sup> 참	<sup>8</sup> 여	<sup>9</sup> 정	<sup>10</sup> 부	<sup>11</sup> 린
<sup>12</sup> 모	<sup>13</sup> 종		<sup>14</sup> 치		<sup>15</sup> 사	<sup>16</sup> 내
		무			<sup>17</sup> 조	<sup>18</sup> 사
	<sup>19</sup> 소	양	강		건	
야	식			<sup>20</sup> 연	<sup>21</sup> 건	<sup>22</sup> 재
바		<sup>23</sup> 자	린	고	<sup>24</sup> 비	<sup>25</sup> 떨
<sup>26</sup> 위	자	료		<sup>27</sup> 방	망	<sup>28</sup> 0이

## 이민국, 영주권·고용허가증 위조 방지 기능 강화

미국 이민국(USCIS)이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의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민국은 하루 전날부터 새 디자인을 적용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새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에는 더 정교한 살화와 촉감 인쇄,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잉크, 홀로그램 이미지 등 위조를 어렵게 하는 최신 기능을 적용했다. 이민국은 위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3~5년마다 카드 디자인을 바꾼다.

우르 자두 이민국장은 “나쁜 사람들이 쓰는 최신 수법을 파악하고, 우리 직원의 혁신과 재능을 활용해 보안 문서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이민국이 발



▲ 새 디자인을 적용한 그린카드(위)와 고용허가증. 사진=USCIS

급하는 보안 문서의 신뢰성을 지속해서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급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은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유효 기간 자체가 없는 오래된 카드를 소지한 경우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새 카드로 교체를 신청할 것을 이민국은 권고했다.

또 기존 디자인을 적용한 카드도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라 당분간 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는 이민 비자가 없거나 이민 지위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등에게 한정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작년 경찰 폭력에 숨진 희생자 10년래 최다

지난해 미국에서 경찰관의 폭력 행위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아시아경제’가 통계기관 ‘경찰 폭력 지도(Mapping Police Violence—MPV)’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경찰관의 폭력으로 숨진 사람 수는 총 1,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2021년의 사망자 수는 1,147명, 2020년은 1,155명이었다. 올해에도 지난 1월 1일~30일 동안 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찰 살해 피해자 가운데 흑인은 26%를 차지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 지난 28일 뉴욕에서 경찰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13%인 점을 감안하면 흑인이 상대적으로 경찰 폭력을 당할 위협이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3~2022년 경찰에 살해된 흑인은 10만 명당 7,222명꼴로, 여러 인종 중 가장 높았다. 이는 2,632명인 백인과 비교해 약 3배 가까이 된다.

일부 전문가는 경찰 폭력의 원인을 훈련 부족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학교의 훈련 내용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로 무기 사용과 방어 전술을 강조하는 반면 소통과 위기관리 같은 연성(soft) 기술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기와 마약 사용이 잦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총기 등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1458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19에 있습니다)

1	2	6		9			
		5	7			1	3
			6			9	
4				8		7	9
3	5						1
			2	7		4	
6	3	8				9	
	8				5	7	
			4	6		2	